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전문적인 지식과 발상의 관계

많은 지식,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은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동시에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명이란 전문가의 지식과 창의력이 어우러진 연구가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 자신의 고정관념 등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만큼 살아온 시간 동안 반복 학습된 지식에 갇혀 시각을 조절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전문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어느 분야의 비전문가가 그 분야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다.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비전문가의 비전문적 시각이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섬유 메이커인 일본의 어느 회사는 신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회사는 회사 내의 전 사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나 제안을 모집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회사 외의 일반인의 아이디어나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전 업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그 회사만이 사원의 휴가마저 취소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이 회사는 언제나 사용자, 소비자 측에서

상품을 개발 했고, 이 특수 섬유의 이용 방법에 대해 거듭 일반인의 의견을 모집,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고안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신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여 약 5년 동안에 국내의 여러 곳에 특수 섬유공장을 세울만큼 큰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회사는 회사 내의 전문 연구원이 아닌 비전문가의 고안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 좋은 예이다.

사실 연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자도 아닌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상품화하여 성공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집은 우산이나 만능보자기와 같이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은 가정주부의 조그마한 아이디어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또한 상품의 개발이란 시장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한 발명이나 고안이 바로 상품화되어 일반인에게 팔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발명인데 반짝이는 순간에 얻어진 아이디어 상품이든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발명도 고안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회사의 개발 연구원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노력했다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 피나는 노력은 공연한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용품을 늘 접하고 사는 주부나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기업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많은 참작을 해야할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 큰 발명

사람들은 흔히들 발명이라는 것은 고고한 성숙에 깊숙히 간직되어 있는 진귀한 보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않은 견해이다. 오히려 발명이라는 것은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와 같다. 먼저 그 돌멩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줍는 사람이 바로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즉, 발명가라는 명예로운 직함에 다가설수 있는 인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위대한 발명가와 과학자가 천재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상기하자.

발명의 착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대한 힌트는 어디에나 있으며,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을 재빨리 파악하고 새롭게 변신시키면 비로소 발명가라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공잔디의 새로운 시공법을 창안해낸 사람도 과학자나 발명가가 아닌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그가 인공잔디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서였다.

그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TV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날은 아주 중요한 야구게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TV를 보았다.

TV화면은 경기시작 전의 경기장 안을 구석 구석 비추고 있었다. 관중의 표정이나 덕아웃에 앉아있는 감독, 선수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세세히 화면에 나타났다. 그때 순간 그의 관심을 총집중시키는 장면이 잠깐 지나갔다.

“아니! 그라운드의 한쪽 모서리의 잔디가 벗겨져 들려있잖아. 선수들이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잠깐 스쳐지나간 장면이었지만 그는 이 광경을 가슴깊이 새겨두었다.

‘인공잔디 시공법은 대체 무엇일까? 모서리가 벗겨지는 것은 시공법의 결함 때문일까?’

그는 그 간단한 장면에서 이와같이 의문을 발견하고 잔디시공법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

았다. 그결과 그는 잔디의 모서리 부분에 못을 박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못을 박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낼 수는 없을까?’

그는 오랫동안 고심해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간단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다.

‘인공잔디를 시공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면에 잔디가 착 달라붙어서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보다 더 튼튼할거야.’

그는 이 생각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 믿고 급히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결과 「인공잔디의 부설시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그가 고안해낸 이 방법은 기존의 것보다 쉽고 빨리 시공할 수 있어 아주 경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어지자 대부분의 운동경기장들은 모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잔디를 깔았다. 그결과 그는 특허권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다음 사람에게 의해 완전하게 접근되는 것이다”라고 그의 저서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헛점투성이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좀더 자세히 주위를 보자. 불완전하고 헛점투성이인 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 성공의 기회이다. <王>

審 查 便 覽

국판(25절), 750면,

특허청판, ₩ 14,000